

S&P, 카타르의 신용등급을 올려

□ 신중한 재정정책, 풍부한 대외유동성, 높은 GDP 성장률 등에 힘입어 신용등급 상승

- 미국의 국제신용평가기관인 Standard & Poor's(S&P)는 7월 15일자로 카타르의 외화표시 장기국채 신용등급을 A-에서 A+로, 내국화폐표시 장기국채 신용등급을 A에서 A+로 각각 상향조정한다고 발표하였음. 또한 단기국채 신용등급의 경우 외화표시와 내국화폐표시 모두 기존의 A1을 유지하며, 등급전망을 “안정적”(stable)으로 평가하였음.¹⁾

· 이에 따라 국영 석유회사 Qatar Petroleum의 장기외화채권신용등급도 A-에서 A+로 상승하였음.

- S&P는 석유가격의 보수적인 전망에 근거한 신중한 재정정책의 시행, 풍부한 대외유동성 확보 및 높은 GDP 성장률 등의 요인이 이번의 신용등급 상향조정의 배경이 되었다고 설명하였음.

□ 중앙정부의 채무 규모 감소 등 긍정적인 상황 지속

- S&P는 앞서 5월 13일자로 카타르의 외화표시 장기국채 신용등급을 BBB+에서 A-로, 내국화폐표시 장기국채 신용등급을 A-에서 A로 상향조정한 바 있음. 또한 단기국채 신용등급의 경우 외화표시와 내국화폐표시 모두 A2에서 A1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, 거시경제전망을 “긍정적”(positive)으로 평가한 바 있음.

1) 참고로 역시 미국의 국제신용평가기관인 Moody's는 카타르의 외화표시 장기국채 신용등급을 Baa2로 평가한 바 있으며, 조만간 등급을 상향조정할 것으로 전망됨.

- 당시 S&P는 주로 LNG 수출 증가에 의한 중앙정부의 수입(收入) 증가에 따른 공공부채 규모 및 채무상환 부담의 감소를 반영하여 동국의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하였음.
- S&P는 동국의 공공부채가 2001/02회계년도에는 GDP의 60% 수준이었으나, 2002/03회계년도에는 GDP의 55%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였음.²⁾

전문연구원 오경일 (☎3779-6646)
E-mail : oki1122@koreaexim.go.kr

2) 중앙정부의 내국은행 예금 규모를 감안하면, 카타르의 공공순채무는 2001/02회계년도에는 GDP의 32%, 2002/03회계년도에는 GDP의 27% 수준으로 추정됨.